

# 효성, 화학PG 김해식 전무 승진

임원 46명 승진에 이사직 없애 ... 의사결정 단계 줄여 스피드경영

효성그룹은 김해식 화학PG(퍼포먼스그룹) 상무와 조봉규 섬유PG 상무를 각각 전무로 승진시킨 것을 비롯해 46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효성은 이사대우는 상무보로, 이사는 상무로 바꿔 직급을 단순화했다. 직급체계 단순화는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스피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효성은 상무를 중심으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그룹 주요 핵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 승진인사에서는 신임 상무보로 발탁된 안성훈 경영혁신팀장이 34세로 그룹의 최연소 임원으로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부사장, 조현문 전무, 조현상 상무는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 사람은 2003년 2년 만에 한 단계씩 나란히 승진하면서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승진임원 명단> ◇전무(4명) 김해식 화학PG PP/DH PU장, 조봉규 섬유PG 폴리에스터원사PU장, 엄서룡 지원본부 홍보담당, 남성윤 산업자재PG 타이어보강재PU ◇상무(29명)석연호 김성호 이병노 안승무 조춘 이화택 강래훈 이인우 김영민 윤옥섭 백홍건 김동곤 한성운 남국현 이창황 문섭철 조희근 박찬선 조홍 윤민혁 차능무 박철한 조진규 고동윤 이학성 강경모 이승구 김진규 박원규 ◇상무보(13명) 김남일 조재준 조웅기 조도선 한기만 오시덕 홍성해 이우승 이상태 장세걸 박종철 안성훈 유영환

<화학저널 2005/01/19>